

기숙사 거주 여대생의 단위공간 내 영역행동에 관한 연구

허진선 · 양세화
주거환경학과

<요 약>

본 연구는 기숙사 거주 여대생을 대상으로 단위공간 내에서 개인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나타나는 영역행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울산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48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단위공간에서 느끼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공간·영역성 지각과 단위공간 구획 방식에 따른 영역행동을 설문조사와 관찰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여학생들은 단위공간에서 프라이버시와 개인공간의 영역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둘째, 단위공간 구획방식에서는 침대와 책상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이 구분되고 학년에 따른 영역행동의 위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개인공간의 구획방법은 주로 가구배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장소와 구분하고 있으며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커튼이나 가리개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역을 표현하였다.

Territorial Behaviors of Female Students in Residence Hall Rooms

Hur, Jinseon · Yang, Sehwa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erritorial behaviors of female students in residence hall rooms. The purpose was accomplished through observing 12 rooms and interviewing 48 students occupying these room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tudents tend to have strong positive perceptions of privacy, personal space and territoriality in their rooms,

and territorial markers including furnitures, screens and curtains serve to protect individual spots in the rooms.

I. 서론

대학 기숙사의 단위공간은 수면, 학습, 휴식, 사교, 수납 등 개인적인 생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나 기숙사 단위공간은 대부분 2인실과 4인실로 구성되어 있어 공용공간의 성격이 강하다. 이로 인해 거주자는 공용의 단위공간 내에서 자신만의 개인 공간을 가지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적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영역 행동은 단위공간을 공유하는 거주자간의 사회적 관계나 심리적 반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공간이나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역성은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기숙사 단위공간 같은 곳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즉 거주자 각각의 영역성 확보는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게 해 주는 것은 물론 거주자들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도모함으로써 바람직한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영역성은 단위공간에 대한 거주자들의 감정이나 행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Chung, 2000), 개인 영역이 확보되지 못하면 거주자간의 갈등이나, 거주 불만족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숙사 단위공간에서는 가구나 개인적인 물품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위공간 내에서의 영역적 행동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물리적 환경과 인간 행태간의 관계 규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기숙사 단위공간의 사용 실태 및 프라이버시와 개인공간·영역성 지각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단위공간 내에서 개인별로 점유하고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거주자 각각의 생활 영역도를 작성하며 셋째, 거주자들이 개인별 생활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공간 구성 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역성의 정의

영역성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장소나 지역을 소유 또는 점유하기 위해 보여주는 행태 유형으로 개인화되거나 소유된 지역의 침입에 대한 방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Altman과 Andrey는 영역성을 인간의 일상적 행위를 안정시켜 주고, 장소나 대상의 조절을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을 인식시켜 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조정하고, 타인으로부터의 불의의 침입을 막아주는 장치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또는 표시(marking)하기를 원하는 자신과 외부간의 경계 설정 구조로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소유되었다는 의사전달이다(이재훈 외, 1990).

2. 기숙사 단위공간의 영역성에 관한 연구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숙사 관련 연구(조충기, 1987; 유지상, 1990; 조현진, 1995; 안옥희, 1997)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단위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시설 현황과 평면 계획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결과의 공통점은 물리적 환경의 문제점 외에 단위공간 내에서의 개인 공간의 확보나 프라이버시 존중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환경에 대해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 및 국외에서 기숙사 단위공간에서의 개인의 영역 확보를 다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Chung(2000)은 영역성이 거주자들의 행동이나 감정, 그리고 단위공간 환경에 대한 반응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ivingston(1996), Van der Ryn과 Silverstein(1972)은 기숙사 단위공간이 거주자의 다양한 생활 요구를 수용하기에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한 그 공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이 거주자들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ang(1987)과 Deasy(1985)는 단위공간 내에서 거주자 각각의 개인 공간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거주자들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구배치나 개인의 소지품을 통해 개개인의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숙사 단위공간 내에서 특히 개인 공간의 확보나 프라이버시 존중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침실의 크기가 작고 거주인원의 수가 많을수록 타인으로부터의 공간 침해가 많아 개인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시스템 가구나 모듈러 가구와 같은 이동식 가구, 칸막이 등을 이용한 적절한 가구배치가 거주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공간의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조충기, 1987; 유지상, 1990; 조현진, 1995; 안옥희, 1997).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 기숙사 4인실 12개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그 곳에 거주하는 여학생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단위공간 내 개인의 생활영역 조사, 영역 행동의 관찰 등을 통해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를 위한 도구인 설문지는 유성희(1982)의 「개인공간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와 Chung(2000)의 「User's perceptions of territoriality in residence hall rooms」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임의로 개발하였으며,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공간의 사용 실태, 프라이버시와 개인 공간·영역성 지각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는 2001년 5월 14일에 조사 대상 단위 공간 중 1개 실을 대상으로 그 거주자인 4명의 여학생에게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문항의 부적절한 어휘와 구성 방식이 수정·보완되었다. 본조사는 2001년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12개의 단위실을 대상으로 총 48부를 배포하여 모두 회수하였다.

관찰조사는 단위공간 내에서의 개인의 생활영역과 개인공간 구획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관찰은 2001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개인의 생활영역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생활영역에 대한 관찰은 Chung(2000)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단위공간 내에서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책상과 침대, 옷장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AutoCAD 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개인의 생활영역도를 작성하였다. 2차 관찰은 5월 31일부터 6월 1일 까지 실시되었는데, 단위공간내의 가구 배치, 커튼 등의 가리개 사용, 소품을 이용한 개인공간 구획 방법 등이 심층적으로 조사되었다.

IV. 결과분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 여학생의 학년은 1학년이 24명(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의 학년은 뚜렷한 차이 없이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신입생 비율이 아주 높음을 알 수 있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30명(62.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공계열(27.1%)로 나타나 조사대상이 여학생인 만큼 자연계열 보다 인문계열이 월등함을 알 수 있다. 거주기간은 1학기가 25명(52.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의 절반이 1학년이기 때문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8

변수	f	(%)	변수	f	(%)	변수	f	(%)			
학 년	1학년	24	50	전 공	인문사회계열	30	62.5	거 주 기 간	1학기	25	52.1
	2학년	9	18.7		이공계열	13	27.1		2학기	1	2.1
	3학년	5	10.4		예체능계열	4	8.3		3학기	11	23
	4학년	7	14.6		의학계열	1	2.1		5학기	8	16.6
	대학원	3	6.3		계	48	100		7학기 이상	3	6.2
	계	48	100		계	48	100		계	48	100

2. 단위공간의 사용실태

조사대상 여학생의 단위공간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현재 사용하는 침대의 위치에 대해 전체의 77.1%가 만족하다고 하였는데 이 중 현재 2층 침대의 아래쪽을 사용하는 여학생은 전부 만족을 나타냈다. 그러나 위쪽의 침대를 사용하는 여학생은 침대를 오르내리는 불편함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희망하는 침대의 위치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약 83% 가량이 아래쪽을 원하였다. 컴퓨터 소유에 있어서는 소유하지 않는 여학생이 81.3%로 평균적으로 컴퓨터가 1실당 1대에 못 미쳐 단위공간 내에서 컴퓨터가 차지하는 면적의 부담은 심하지 않은 편이다. 방의 크기에 있어서는 85.4%가 적당하다고 하여 공간의 크기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었으며, 단위공간에서의 희망 거주인원수는 2인이 5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인(29.2%)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위공간을 사용할 때 각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의 구획 방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구획이 없이 방 전체를 공동으로 사용한다'가 58.3%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배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장소와 어느 정도

구획한다'가 41.7%로 나타나 공간을 구획해야 할 경우 특별한 도구 없이 단위공간에 구비되어 있는 기본 가구를 이용하여 구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단위공간의 사용실태

n=48

변수		f	(%)	변수		f	(%)
현재사용하는 침대 위치 만족도	만족	37	77.1	컴퓨터 소유	소유	9	18.7
	불만족	11	22.9		무소유	39	81.3
	계	48	100		계	48	100
희망하는 침대의 위치	1층	40	83.3	방의 크기	아주 좁다	-	-
	2층	8	16.7		좁다	7	14.6
	계	48	100		적당하다	41	85.4
희망하는 거주인원수	1인	5	10.4		넓다	-	-
	2인	25	52.1		아주 넓다	-	-
	3인	4	8.3		계	48	100
	4인	14	29.2				
	계	48	100				
변수						f	(%)
방의 구획	특별한 구획이 없이 방 전체를 공동으로 쓴다.					28	58.3
	가구를 배치로 다른 사람의 장소와 어느 정도 구획					20	41.7
	커튼이나 가리개 등으로 서로 보이지 않게 막고 쓴다.					-	-
	기타					-	-
	계					48	100

3. 프라이버시 및 개인공간 · 영역성 지각

조사대상 여학생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각을 살펴보면, 혼자 있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이 방해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약 30%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타인의 방해 없이 행동이 자유롭다는 항목에서는 6.3%만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하여는 약 15%만이 '그렇지 않다'에, 단위공간에서의 편안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나 '매우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으며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도 10%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3> 프라이버시 및 개인공간·영역성 지각

n=48

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f (%)	f (%)	f (%)	f (%)	f (%)	f (%)
프 라 이 버 시	나 혼자 있고 싶어 내 방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드나들거나 방해할 한다.	-	14(29.2)	22(45.8)	11(22.9)	1(2.1)	48(100)
	내 방에서 타인의 방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자유롭다.	-	21(43.7)	24(50)	3(6.3)	-	48(100)
	내 방에서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편안히 쉴 수 있다.	2(4.1)	13(27.1)	26(54.2)	7(14.6)	-	48(100)
	내 방에서 나는 편안하다.	4(8.3)	28(58.3)	16(33.4)	-	-	4(100)
	내 방에서 나는 타인으로부터 나의 사생활이 침해받는다고 느낀다.	-	5(10.4)	21(43.7)	19(39.6)	3(6.3)	4(100)
개 인 공 간 · 영 역 성 지 각	내 방은 여러 사람이 같이 지내기 때문에 나만의 방이라고 할 수 없다.	5(10.4)	26(54.2)	11(22.9)	5(10.4)	1(2.1)	48(100)
	내 방에 둔 내 물건을 나의 허락 없이도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	3(6.3)	11(22.9)	13(27)	18(37.5)	3(6.3)	48(100)
	내 방은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	2(4.2)	16(33.3)	20(41.7)	10(20.8)	-	48(100)
	내 방에서 룸메이트와 공간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공간을 나누고 있다.	4(8.3)	34(70.8)	9(18.8)	1(2.1)	-	48(100)
	내 방에서 현재 나만의 공간을 가지기 위해 가구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	5(10.4)	16(33.4)	25(52.1)	2(4.1)	48(100)
	내 방에서 나의 공간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을 붙일 필요가 있다.	-	5(10.4)	13(27.1)	24(50)	6(12.5)	48(100)

한편 개인공간·영역성 지각의 측면에서는 단위공간은 여러 사람이 같이 지내기 때문에 나만의 방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항목에 대해 13.5%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자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남이 사용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약 44%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마음대로 방을 꾸밀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하여는 20.8%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룸메이트와 갈등 없이 공간을 나누고 있다는 항목은 겨우 2.1%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나만의 공간을 위한 가구의 재배치 필요성이나 그림이나 사진들을 활용할 필요성에 대한 항목에는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조사대상 여학생들은 단위공간 내에서 프라이버시나 개

인공간·영역성이 비교적 잘 확보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영역행동

1) 가구배치를 통한 공간구획 및 생활영역도

개인의 영역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구배치를 통한 공간구획 방식과 각자의 생활영역을 관찰하여 파악하였다. 먼저 총 12개의 단위공간을 조사한 결과, 단위공간의 구획방식은 <표 4>과 같이 크게 5가지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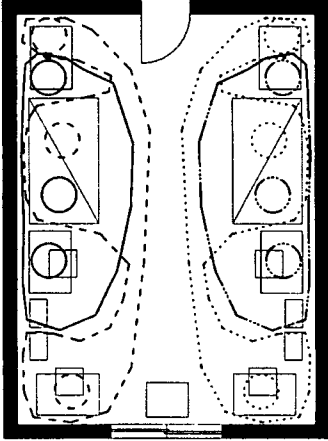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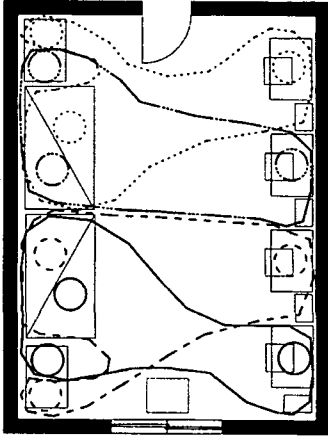
<표 4> 가구배치를 통한 공간구획 방식

가구배치방식	실(室) 수	내용
1) 침대, 책상의 양쪽대칭배치	4개	2인이 사용하는 침대와 책상, 옷장이 양 벽면에 각각 배치되어 취침, 학습의 공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짐.
2) 침대, 책상의 일렬배치	2개	한쪽 벽에는 침대와 옷장을 일렬 배치하고 다른 쪽 벽에는 책상을 일렬 배치하여 취침공간과 학습공간을 완전 분리.
3) 침대일렬배치, 책상 1 : 3배치	3개	2)번 방식이 약간 변형된 것으로 한쪽 벽에 침대를 일렬 배치하기는 하나 옷장 대신에 책상 한 개가 배치된 형태.
4) 침대양쪽배치, 침대중심으로 책상양쪽대칭배치	2개	1)번 방식이 약간 변형된 것으로 침대와 책상을 양쪽으로 각각 분산 배치하지만 침대를 사이에 두고 책상을 각각 배치하여 4인 모두의 학습공간이 분리됨.
5) 침대일렬, 수직배치	1개	책상은 양쪽으로 각각 두 개씩 배치하면서 침대를 한쪽으로 일렬 수직 배치한 형태로, 침대를 사이에 두고 2명의 학습공간을 분리.

첫 번째 구획방식은 가장 많이 나타난 방식이다. 2인이 사용하는 침대와 책상, 옷장이 양쪽으로 각각 배치되어 취침, 학습의 공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기숙사의 본래의 평면형태를 그대로 취하는 것이다. 보통 1층 침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침대 가까이 있는 책상을 사용하여 생활동선이 짧은 반면 2층을 사용하는 사람은 창가 쪽의 책상을 사용하여 동선이 길다. 또한 같은 쪽의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끼리는 동선의 마찰이 있지만 반대쪽에는 접촉이 거의 없고 영역의 구분이 확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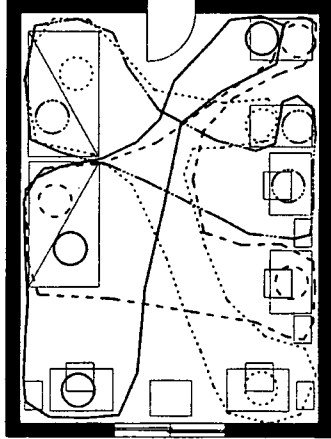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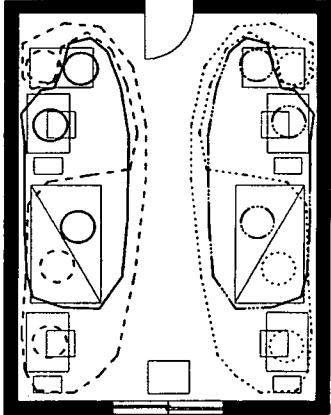
두 번째 구획방식은 한쪽 벽에 침대와 옷장을 일렬 배치하고 다른 쪽 벽에는 책상을 일렬 배치하여 취침공간과 학습공간을 완전 분리한 형태이다. 4명 모두의 취침과 학습을 위한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며 각 개인의 동선의 길이가 같고 수평적이며 가장 평등한 공간 구성 방식이다. 단점은 양쪽 벽면에 가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커서 개인의 공간 확보가 어렵다.

<표 5> 개인의 생활영역도 작성

가구배치방식	생활영역도
1) 침대, 책상의 양쪽대칭배치 동선개념도	 <p>The diagram shows a symmetrical furniture arrangement in a room. Two beds are placed on opposite sides of the room, with desks and chairs positioned between them. Dashed lines represent the movement paths of individuals, showing a balanced and symmetrical flow across the space.</p>
2) 침대, 책상의 일렬배치 동선개념도	 <p>The diagram shows a linear furniture arrangement where beds and desks are placed along the same wall. Dashed lines represent movement paths, which are more complex and cross each other, indicating a less organized flow compared to the symmetrical layout.</p>

세 번째 구획방식은 앞에서 살펴본 2번 방식이 조금 변형된 것으로 한쪽 벽에 침대를 일렬 배치하기는 하나 옷장 대신에 책상 한 개가 배치되는 형태이다. 침대에 인접한 책상을 사용하는 사람은 동선이 가장 짧고 자신만의 취침과 학습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각각 동선이 수평으로 나타나며 침대와 책상이 떨어져 있다. 이 방식은 한 사람에게 치중한 형태로 대체로 고학년 학생을 위해 선택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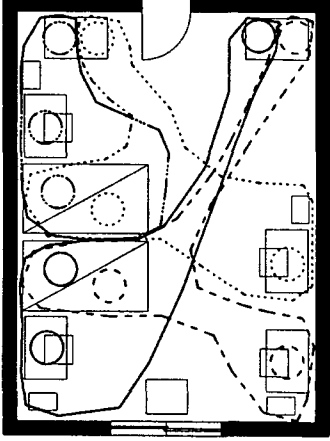
<표 6> 개인의 생활영역도 작성

가구배치방식	생활영역도
3) 침대일렬배치, 책상 1 : 3배치 동선개념도	
4) 침대양쪽배치, 침대중심으로 책상양쪽대칭배치 동선개념도	

네 번째 구획방식은 1번 방식이 조금 변형된 것으로 침대와 책상을 양쪽으로 각각 분산 배치하지만 침대를 사이에 두고 책상을 양쪽으로 각각 배치하여 4인 모두의 학습공간이 분리되어 타인으로부터의 방해가 가장 덜 느낄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학습공간이 확보되고 침대와의 거리도 가장 짧아 비교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현재 기숙사에 설치된 콘센트와 조명의 위치가 적절하지 못해 불편함이 따른다.

다섯 번째 구획방식은 책상이 양쪽으로 각각 두 개씩 배치되며 침대를 한쪽으로 일렬 수직 배치한 형태로, 침대를 사이에 두고 2명의 학습공간이 분리되지만 나머지 2명의 학습과 취침공간의 확보가 어렵고 동선이 불리하다. 또한 침대가 수직으로 배치되어 공간을 더 좁게 만들고 있다.

<표 7> 개인의 생활영역도 작성

가구배치방식	생활영역도
5) 침대일렬, 수직배치	
동선개념도	

2) 개인공간 구획방법

관찰을 통해 나타난 단위공간 내에서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와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를 구획하는 방법은 <표 8>과 같다.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개개인의 공간을 확보하고 구분하기 위해 기존의 전형적인 가구배치에서 벗어나 개성있는 가구배치를 시도하고 있었으며 서로간의 영역 사이에는 수납공간을 두어 완충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책상을 중심으로 한 학습공간에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여 벽면을 꾸미고 있으며 취침공간인 침대에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자신의 공간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자신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 외에도 취침 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추측된다.

<표 8> 개인공간 구획방법

1) 침대, 책상의 양쪽대칭배치 (1209 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적인 가구배치로 시각적 차단 구획방법이 전혀 없음. · 개인 침대에 커튼을 달아 개인영역을 구분함. · 자신의 책상에 면하는 벽에 사진이나 그림을 부착.
2) 침대, 책상의 일렬배치 (1408 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적인 가구배치 시각적 차단 구획방법이 전혀 없음. · 책상사이에 책꽂이와 개인 서랍장을 두어 완충공간을 가짐. · 자신의 책상에 면하는 벽면에 사진이나 그림을 부착.
3) 침대일렬배치, 책상 1 : 3배치 (1519 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상을 침대 가까이 배치하여 자신의 공간을 확보. · 컴퓨터를 소지하는 자는 자신의 영역을 더 크게 확보하고 있음. · 자신의 책상에 면하는 벽면에 사진이나 그림을 부착.
4) 침대양쪽배치, 침대중심으로 책상양쪽대칭배치 (1303 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대를 중심으로 거주자 모두의 생활영역이 구분됨. · 단위공간의 활용도가 높아 개개인의 영역 확보가 가장 큼. · 자신의 책상에 면하는 벽면에 사진이나 그림을 부착.
5) 침대일렬, 수직배치 (1323 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으로부터 개인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구를 재배치 함. · 학년이 높은 두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책상과 침대를 가깝게 배치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확실히 구분함. · 책상사이에 개인 서랍장을 두어 완충공간을 가짐. · 침대에 커튼을 달아 개인영역을 구분함. · 자신의 책상에 면하는 벽면에 사진이나 그림을 부착.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단위공간에서 개인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영역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분석결과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기숙사 단위공간의 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의 절반이 1학년 학생으로 조사 당시 기숙사 거주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평가가 정확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층 침대의 사용에 대한 불편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가 적극적으로 가구를 재배치하여 방을 구획하고 있었다.

둘째, 조사대상 여학생들은 단위공간 내에서의 프라이버시나 개인공간·영역성이 비교적 잘 확보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자들 사이의 친밀도로 인해 영역성 침해에 대해 그다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이미 적극적인 가구배치 등을 통해 서로간의 갈등 없이 공간을 구획함으로써 프라이버시나 영역성 침해로 인한 문제를 제거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단위공간에서는 주로 취침과 학습이 이루어지며 침대와 책상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이 구분되었다. 가구 사용에 있어서 침대는 고학년이 아래쪽을, 저학년이 위쪽을 사용하는 성향이 높고, 침대와 책상간의 거리도 고학년이 가장 짧은 동선을 가지는 반면 저학년은 문과 가까운 곳을 사용하거나 침대와 먼 창가 쪽을 사용하여 위치 상 불리하고

동선의 길이도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가구배치 시에는 영역적 표현이 예민하게 나타나고, 동일한 방에서도 영역은 다양하게 구분되며 그러한 영역 구분은 고학년과 저학년에 따라서 영역행동의 위계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개인공간의 구획방법에서는 대부분이 가구를 통한 구획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와 구분하고 있었다. 고학년과 저학년에 따라서 다소 이기적인 영역 행동이 나타나며 또한 컴퓨터 등의 부피가 큰 물건을 가진 사람은 더 큰 영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영역의 감소로 심리적인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공간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하는 침대에 커튼이나 천 등으로 가리개를 하며 벽면에 그림 등을 부착하여 수평·수직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끝으로 단위공간 내 영역행동은 거주자의 구성과 개인이 소지하는 물품의 양에 따라 그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콘센트와 조명의 위치가 한 곳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공간사용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숙사는 공간의 크기를 고려한 적정 거주인원수의 배치, 충분한 조명과 콘센트 설치 등 단위공간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거주자들은 공간 구획시 위계적인 영역행동 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한 공간을 균등하게 구획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신은주(1987). 실내주거 환경에서의 행태 해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경환(1984). 주거환경설계에서의 환경심리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8, 118, 44-49.
- 안경환(1986). 단독주택설계에서의 영역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 4, 97-104.
- 안옥희, 임소연, 권오정(1997). 대구권 대학기숙사의 시설현황 및 거주자의 사용실태. 한국주거학회지 8, 3, 119-129.
- 유성희(1982). 청소년의 주거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지상, 이경희(1990). 대학기숙사 거주공간의 환경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0, 2, 221-224.
- 이재훈, 김진균(1990). 영역성에 의한 건축공간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 6, 149-156.
- 이연숙(1998).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 조충기(1987). 대학기숙사 건축설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진(1995). 대학기숙사 단위공간의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 Chung, Yun-mi(2000). User's perceptions of territoriality in residence hall roo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
- Deasy, C.M.(1985). Designing places for people. New York: Whitney Library of Design. In User's perceptions of territoriality in residence hall rooms, Yun-mi Chu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
- Lang, J.(1987).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The role of the behavioral sciences in

environmental design.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In User's perceptions of territoriality in residence hall rooms, Yun-mi Chu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

Livingston, N.(1996). Dormitory purgatory. Saint Paul Pioneer Press. In User's perceptions of territoriality in residence hall rooms, Yun-mi Chu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

Van der Ryn, S., & Silverstein, M.(1972). The room, a student personal environment. In User's perceptions of territoriality in residence hall rooms, Yun-mi Chu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